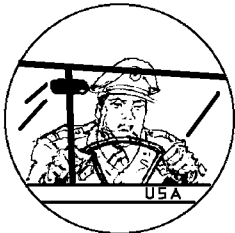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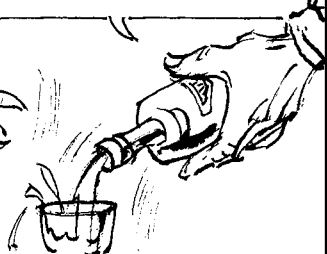
파탄된 령혼작전

글 심영택
그 림 강상준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던 우리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하였다.
노도와 같은 인민군부대들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적들은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인민군의 한 련합부대는 영진포시를 해방하기 위한 공격준비를 하고있었다. 적들은 영진포시를 빼앗기게 되면 정세가 저들에게 불리해진다는것을 간파하고 무력을 증파하여 도시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도시폭파를 념두에 둔 령혼작전을 비밀리에 준비하고있었다. 인민군련합부대에서는 영진포시에 침투되여 활동하고있던 《수성》정찰조에 그곳 인민유격대와 련계를 가지고 공격개시전인 보름동안에 놈들의 작전내막을 알아내여 파탄시킬데 대한 긴급임무를 주었다.

나오는 사람들

령혼작전안을 승인한다. 비밀을 철저히 담보하는 조건하에서 속히 작전을 실행에 옮길것.
도꾜

막이 올랐소. 장란중위, 즉시 령혼 작전에 참가할 장교들을 내 방에 부르시오. 가만 치안대장 공치규도 불러야겠소.
그도 령혼작전에 참가합니까?
방첩장교 장란
이번 령혼작전에 공치규와 같은 용맹무쌍한 용사들이 필요한거요. 중위는 그가 참가하는 게 달갑지 않은게 구만?
민충이 쑥대우에 오른것만치나 우쭐렁거릴 꼴이 보기 역겨워 그래요. 그럼 전…
매혹적인 계집이야.
《치안대》 대장방
《치안대》대장 공치규
상관이 하는 일을 내가 알게 뭐요. 헌데 치안대장이 하찮은 그년과 무슨 계산할게 많소?
림소령, 그런데 말이요. 그 정순이란 악질교원년은 왜 아직 창고지하실에 가두어두라는거요? 내 그년과 계산할게 많은데…

사령관님이 당신을 비밀회의에 초청했어요.

나를?!… 원 이런 황송할 데라구야.

공대장, 시샘나는걸. 사령관님의 안중에 들어있으니 말이요.

아이, 림소령님도 계셨군요. 미처 몰라봐서 미안해요.

흥, 장란이 눈엔 림소령만 사람으로 보이는게지?!

공대장, 난 륙군중위
예요. 과거의 헛된
꿈은 버려요.

저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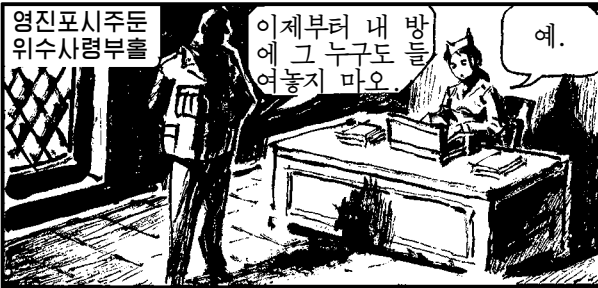
유격대지휘부

정순선생이 창고지하실
에 갇혀있단 말이지?!…

대장동지, 체포된 애국
자들을 모두 학살한 놈
들이 정순선생이라고 가
만둘수는 없습니다. 빨
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알겠소. 정순선생에 대한
구출전은 민철동무가 맡
으시오.

알았습니다.
전…

정화동무에겐 더 중요한 임무가 있
소. 동문 시내에 들어가야겠소.
예?

영진포시주둔
위수사령부홀
이제부터 내 방에 그 누구도 들여놓지 마오.
예.
?!
이놈들이 비밀모임을 하려는게 틀림없구나. 모임의 내막을 알아내자면… 모험을 하는수밖에 없다.
저 차주전자를…
이번작전의 내막은 여기 모인 다섯사람만이 알고있소.
만약 비밀이 새여나가는 경우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된다는걸 명심하시오.
우리가 시작하려는 령혼작전은 다음과 같소.

뭔가?
저… 차를 끓여왔는데.

난 차를 부탁 한일 없소. 공연한 수고를 하는구만.

극비
령혼작전

실례했습니다. 전… 그저…

잠간, 이왕 끓여온것이니 놓고가오.

보좌관, 그 주전
자를 가져오오.

?…

도청기?!

앙큼한것,
네년이 그
런 년이였
구나.

내가 너무 무모한짓을
한게 아닐가? 구미
여우같은 사령관놈
이 무슨 낌새를 챘
다면?… 조장동지
를 돕자던노릇이
오히려…

이때 헌병대놈들이 나타났다.
?!

사령관님이 누구도 들여놓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 데이비드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가씨, 그들은 내가 초청했소.

주전자밀에 도청기를 설치한 공산스파이가 나타났단 말이요.
로출됐구나. 조장동지, 먼저 가는 절 용서해 주십시오. 꼭 임무를…

저년을 체포하라.
땅!땅!
으악!

땅!
야!
사령관님, 일없습니까?
팍!
밥통, 누가 죽이라고 했는가, 누가?
어이쿠, 제발… 살려내겠습니다.
당장 살려내시오. 당장!
야! 빨리!
뚜걱! 뚜걱!

병원

군의관, 가망이 있는가?

이미 맥박이 멎었습니다. 총탄이 심장과 복부를 꿰뚫었거던요.

제길할것, 다 틀렸군.

옥영동무, 이런 때 동무가 가면 령혼작전의 비밀은 어떻게 밝혀낸단 말이요, 흑흑.

변장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정화의 눈앞에는 임무를 주던 대장의 모습이 되새겨진다.

정화동무, 시내에 들어가면 오후 2시 화랑카페에서 인민군부대에서 파견한 정찰병인 《수성》과 접선하시오.

화랑카페안에서 정화는 뜻밖에 림지석과 마주친다.

아니?
림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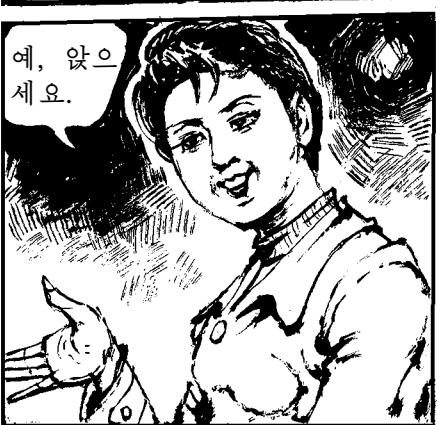
분명 정화다. 저 녀자가 어떻게
시내에 나타났을가?

림지석, 전쟁이 일기 전 시도매소에서 일하
다가 자금횡 령절취죄를 범하고 남
으로 달아났지. 그를
이렇게 또 만나
다니…
아가씨, 앉아도 될가요?

예, 앉으
세요.

아가씨의 머리채는 참 탐스럽군요. 밤하늘의 절경처럼 우아한감을 자아내는군요.

그래요? 저의 머리채를 밤하늘에 비교하셨으니 장식 머리핀을 꽂는다면 아마 수성과 같은 감을 자아내겠군요.

수성과 같은 별들도 있으면 밤하늘이 잘 어울리지요.

저는 윤태정이라고 합니다. 《수성》 정찰조 조원인 동시에 위수사령부 병원 군의관의 역을 하고있지요.
정화라고 합니다. 유격대와의 련락을 맡아하게 됩니다. … 조장동지는?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해하십시오. 공작상필요로 해서 조장동지와는 직접 상면할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엔 조장동지가 정화동물 찾게될겁니다. 며칠전에도 우리의 한 녀동지가 잘못되였습니다.
우선 맞춤한 일자리부터 얻어야겠습니다. 영진포시공격이 눈앞에 박두하자 요즘 시내검색이 스산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해보이면 무작정 잡아가는판이 지요.

제가 병원 간호부로라도 채용할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림지석의 방

이때 방첩대장 조구가 들어선다.

잘 있었나?
림소령.

아니, 방첩대장 왕조구나리! 이 초라한 보급장교의 방을 다 찾아오시구…해가 서쪽에서 뜨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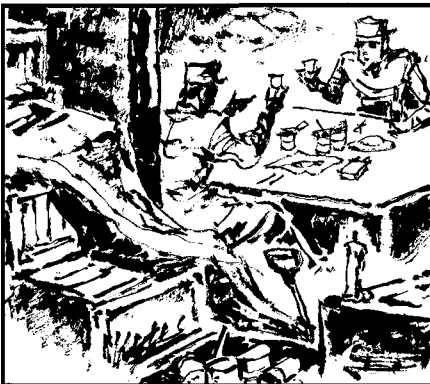
그만 빈정거리구 한잔 내놓게.

몰래 감춰둔게 있겠지?
조구
방첩대장

하, 나를 군수물자도적
놈으로 보는가? 듣기
거북한걸.

또또 값을 올린다. 보급장교자리
가 어떤 자린줄 내 몰라서.

에라, 한턱 낸다.
글쎄, 림소령한테
와야 이런 진품을
맛볼수 있거던,
헤헤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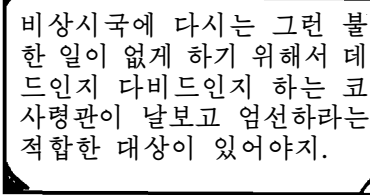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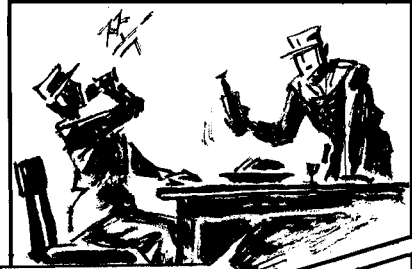
발라맞추는 소리 말고 남의 인
심 악용해서 나를 군법에 넘길
생각은 마오. 방첩대에선 걸핏
하면 생사람을 잡으려들거던.

타자수를 한명 선출
해주시오. 계집이면
더 좋구 고우면 더
더욱 좋구… 히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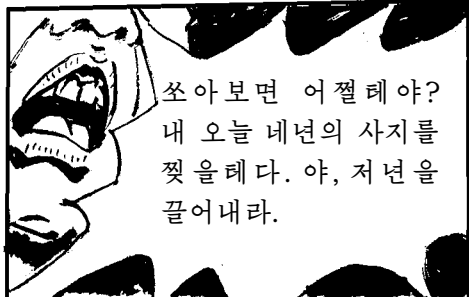
갑자기 타자수는 왜?

위수사령관님의 전용타자수년이 공산군이였다는 소릴 못 들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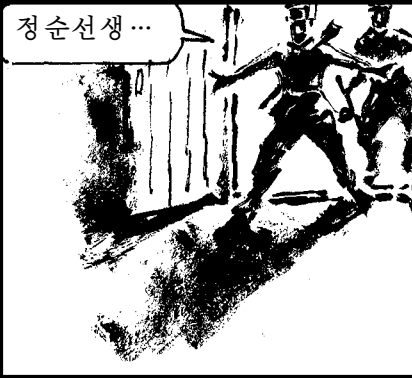
비상시국에 다시는 그런 불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데비드인지 다비드인지 하는 코큰 사령관이 날보고 엄선하라는데 적합한 대상이 있어야지.

사령관이 천명으로 목숨을 건졌으니 그럴테지. 물색해보겠소. 헌데 대체 그날 밤 공산군년이 무얼 내탐하려댔소?
림소령한테만 믿고 말하는데 우린 아주 중대한 령혼작전에 대해 토의하댔지.

그런데 그 깜찍한 년이 도청기를 설치하려 들줄이야…
음, 령혼작전이란 대체 뭐요?

그쯤 알고 더 파고들지 말게. 그 비밀은 사령관과 보좌관, 치안대장과 행동대장인 학모 그리고 나밖에 모르니까. 이 극비가 새여나가면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모가지가 뎅겅하네.

자, 그럼 그만하고 술이나 더 들자구.

창고건물안

민철이와 구출조원들은 정순선생을 구원하기 위해 창고로 은밀히 접근해갔다.

윽!

정순선생…

한발 늦었구나!

이때 밖에서 총소리가 울리였다.
누가 쐈소?

이놈이 설죽었던 모양입니다. 총소릴 냈으니 놈들이 달려들텐데…

안되겠소. 내가 놈들을 유인 할테니 동무들은 저쪽 으로 빠지시오, 빨리.

앗!

이놈들아, 유격대가 여기 있다. 받아라.

어떻게 되여 빨찌산이 창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는가? 그것들이 무슨 눈치를 챈건 아니요?

사령관님, 진정하십시오.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창고에 가두어넣었던 교원년을 구출하려 한것 같습니다.
창고주변에 물샐틈없는 봉쇄망을 치시오. 빨찌산이 창고를 노리는 조건에서 더이상 연극을 할 필요가 없을것 같소.

수상한 놈들은 가차없이 쏴갈기오.

그리고 시내에서 놓쳤다는 그 빨찌산을 기어이
찾아내시오. 부상을 당했다니 멀리는 못갔을거요.

문밖
시내를 참빗처럼 훑겠습니다.

조장동지!

데이비드는 창고경비를 증강하는 한편 창고를 습격했다가 부상당해 시내에 떨어진 빨찌산을 잡아내라는 지시도 방첩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왜 페허와 같은 창고를 놓고 그놈이 안달복달 하는것같소?
혹시 령혼 작전과 관련이 있지 않을가요?

나도 같은 생각이 드오. 옥영동무가 있다면 많은 정보를 뽑아냈을텐데…

아무래도 그 자리에 정화동무를 침투시켜야 할것 같소.
예?

가능할가요? 아직 경험도 없는 동무인데… 차라리 병원간호부를 시키는게…

아니요. 령혼작전의 비밀을 빨리 알아내자면 데이비드곁에 우리 사람이 있어야 하오.
부대의 공격개시시간까지는 벌써 열흘밖에 안 남았소. 정화동무는 꼭 해낼거요.

이리하여 정화는 조구와 함께 데이비드 방으로 가게 되였다.

사령관각하, 분부대로 데려왔습니다.

동양미인의 모델을 타자수로 데려왔군.

사령관님의 마음에도 꼭 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헤헤.

성명 신향란, 영진포시태생, 양주업을 경영한 아버지의 덕으로 서울녀고졸업. 회계원을 한 경력을 가지고있음. 맞소?
예.

타자는 언제 배웠는가?

지난시기 도시다가 운영하는 가게점에서 회계원을 할 때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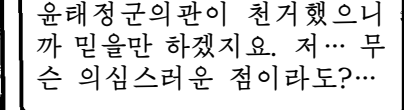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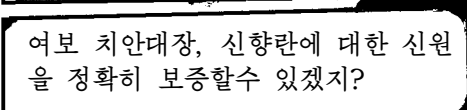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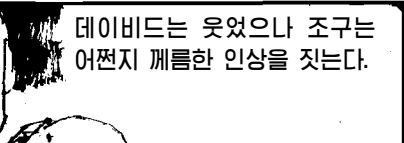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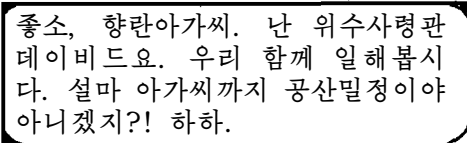
확인해봤는가?
예…면밀히 조사해봤는데… 죄다 사실입니다.

문건에 부모들이 지난 시기 가산이 파산당하자 자살을 했다고 기록되여있는데 이것도 확인했는가?
확인했습니다.

좋소, 향란아가씨. 난 위수사령관 데이비드요.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설마 아가씨까지 공산밀정이야 아니겠지?! 하하.

데이비드는 웃었으나 조구는 어쩐지 께름한 인상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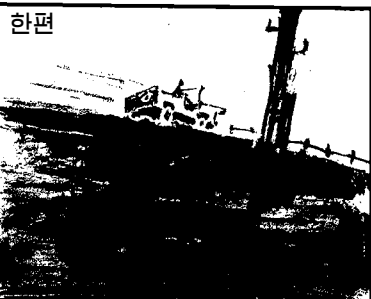
여보 치안대장, 신향란에 대한 신원을 정확히 보증할수 있겠지?

윤태정군의관이 천거했으니까 믿을만 하겠지요. 저… 무슨 의심스러운 점이라도?…

그런건 아니구… 당신을 믿고 신원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미타해서 그런단 말이야. 후날에라도 신향란에게서 문제가 생기면 공치규씨가 책임져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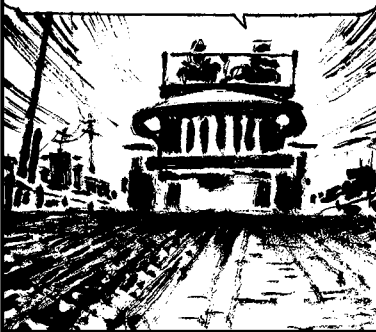
난 아직 신향란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책임을 따지자면야 군의관이…

발뺌할 생각마오. 어쨌든 나한테 신향란을 소개한건 당신이 아닌가?

구미여우같은 새끼. 빠질 구멍을 미리 마련해놓자구 날 위협해?

아무래도 신향란을 좀 만나봐야겠군. 별일은 없겠지만 나두 방패막을 해두는게 나쁘진 않지.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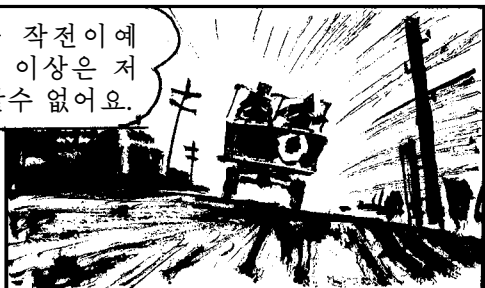
소령님, 안녕하세요? 어딜 가시는가요?
아니, 장란씨가 아니요?
USA

사령관님이 부른다기에… 헌데 누굴 만나러 왔는가요?
소령님을 만나러 왔댔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랍니다. 어쩐지 림소령님을 초청하고싶어서…
아, 그렇소. 축하합니다. 쾌히 초청을 수락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저도 위수사령관한테 가는 길에 들렸는데 같이 가요.
위수사령관이 왜 갑자기 부르는지 모르겠거던.
아마 령혼작전때문일거예요. 지금 사령관님의 안중엔 그 작전만이 꽉 차있으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소릴…

소령님, 제발 제가 한 말을 입밖에 내면 안돼요. 이건 극비중의 극비니까요.

원참, 그렇게 믿지 못할바에 하긴 왜 했소.
사실 그것은 인민군에게 이 영진포시를 빼앗기는 경우에 대처할

중대한 작전이예요. 그 이상은 저도 말할수 없어요.

엉?
아니, 타자수가 새로 왔다더니 정말 미인이군요.

아니, 림지석. 저 사람이 나를
알은체 하면…

알고지내요. 전 장란이라고 해요. 방
첩대에서 근무해요. 여기 이분은 보
급장교인 림지석소령이예요.

신입타자수 신향란이예요.

향란? 저와 마지막이름자가 같군요. 소령님, 호호호.
그러고보니 생김
새도 어딘가 비
슷하오. 자, 우
린 들어갑시다.

후— 다행히 날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

데이비드의 방

림소령, 3호보급창에 있던 폭약상자들을 시급히 창고까지 날라야겠소. 이틀안에 폭약 전량을 거기로 옮기시오.

저… 창고건물은 크지 못해서 절반도 못 채울텐데…

걱정마오. 거긴 림시니까. 소령이 폭약을 실어다놓으면 행동대장이 거기서부터 다른 곳으로 날라갈거요.

알겠습니다.

장란중위만 남고 당신은 가보오.

중위, 당신은 령혼작전과 관련된 중대한 일을 맡아줘야겠소. 아무리 둘러봐야 당신만 한 적임자가 없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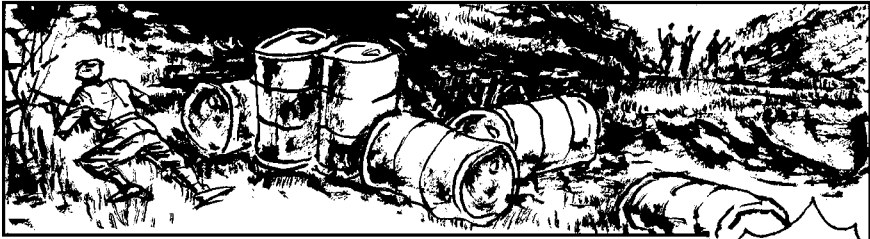
?

내 어디선가 향란씨를 본것 같은데…
화랑카페에서 떨어진 제 가방을 들어주시지 않았던가요. 전 인차 알아봤어요.

아니, 아가씬 어쩐지 그전에 내가 련정을 품었던 처녀와 비슷한데가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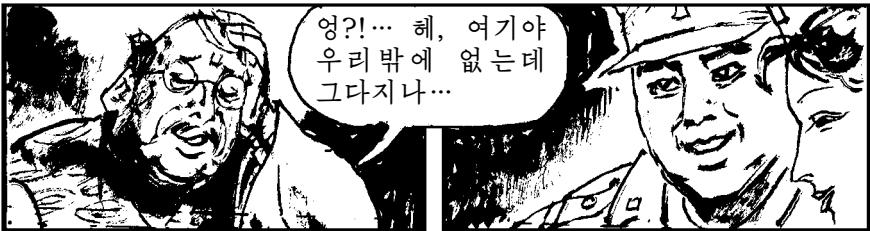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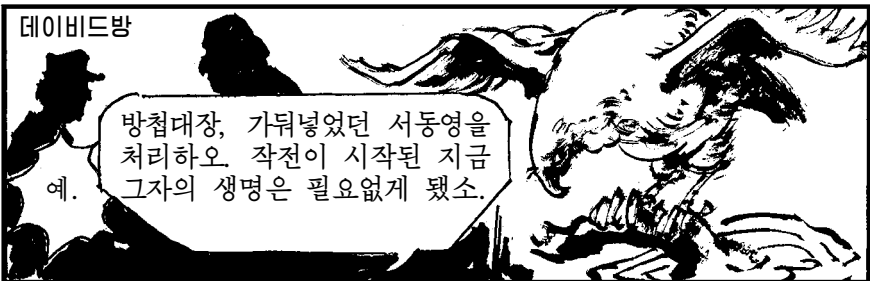
사내들이 녀자들에게 항상 그런 수법으로 첫 말을 걸더군요. 안 그래요? 소령님.

공치규와 《치안대》 놈들은 부상당하고 시내를 벗어나지 못한 유격대원을 찾으려고 야간순찰을 하고있었다.

가만, 오늘이 장란이
의 생일날이로구나.
내가 왜 이제야 그
생각을 했을가. …
야야, 그놈이
어디 있는가
잘 살피라.
흥!
또 계집생각이 나
는게군, 퉤이.
장란의 집
아버지, 림소령이
오셨어요.

장란의 집안

어이구, 이게 누구
슈?!… 어서 들어
오시우, 어서.
어수선한 시국에도 장주사
집 재산은 늘어만 가는군.

그게 다 림소령이 돌봐준 덕이지.
솔직히 림소령이 군수보급물자들을
장사하게끔 해주지 않았다면야…

아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요. 짧은
혀때문에 긴목
잘린다지 않소.

엉?!… 헤, 여기야
우리밖에 없는데
그다지나…

데이비드방

방첩대장, 가둬넣었던 서동영을
처리하오. 작전이 시작된 지금
그자의 생명은 필요없게 됐소.
예.

장란의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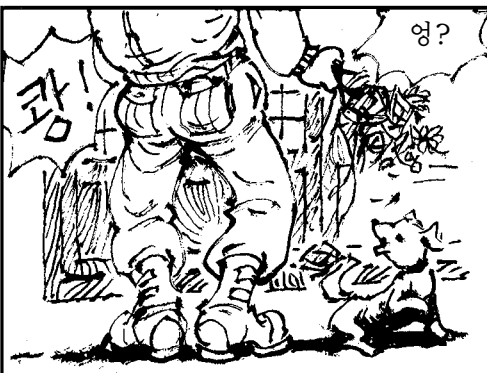
생일기념
이요.
야!
어마나, 고마워요. 지석씨…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가요?

소령님이라는 부름보다 친근해서 듣기 좋구만. 그런데 얼굴색이 밝지 못하구만. 사령관한테 무슨 말을 들은게지…
기분 좋을게 뭐 있어요. 미군은 패주하지, 이 시는 시한탄을 안은듯 위기에 처했지. 지긋지긋해요. …

장란이답지 않게 왜 그러오?
지석씨,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어떨는지 몰라도 이건 사실이예요. … 어제까지만해도 전 먼저 이런 고백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녀자의 자존심은 제게도 있으니까요.

그 자존심이 오늘은 고백하라고 허락합디까?
예, 전 인차 떠나야 하니까요. 이젠 영영 우린 다시 못 만날수도 있어요. 헤여지면서 지석씨한테 저의 심정을 터놓고싶었어요. 저의 사랑을 간직해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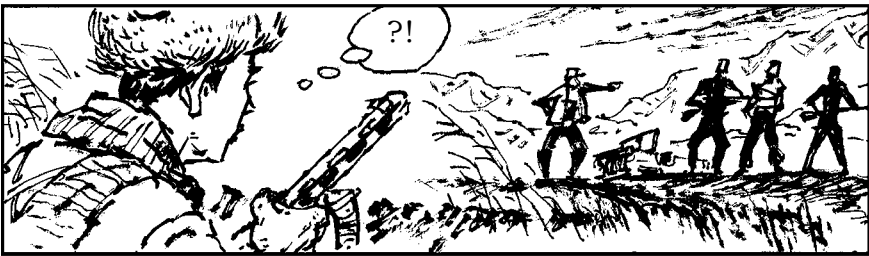
장란이 진정을 막 터놓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 문가에 꽃을 든 공치규가 나타난다.
헤헤 장란이, 생일을 축하하오. 좀 늦었소, 헤헤.

난 당신을 초청한적 없어요. 썩 나가요.

쾅!
엉?

신경이 예민해졌구만, 장란씨.

어디로 떠나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만나게 될지도 아오?

아니, 그렇겐 못돼요. 우린 다 끝장이예요. 끝장. … 흑흑.

쌍년, 군복을 입더니 나같은 건 눈에 안 찬다는거지?! 더럽다. 림지석이 이놈, 내 너한테 장란일 쉽게 내줄줄 알아? 어림두 없다야!
휘익
더러운 년!
왕 왕
?!
서동영씨, 그동안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었소. 이제는 천당에 가보시오.
여보시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죽어야 하오?

비밀을 많이 아는자 먼저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소.

야, 사격 준비.
철꺽!

으악!
에익, 받아라!
뚜루룩

살려주어 고맙습니다. 유격대인가요?
툭!
예, 놈들이 오기 전에 빨리 피하십시오. 유격대를 찾아가시오. 저 산줄기를 따라 가느라면 만날수 있습니다.

갈이 갑시다.
난 다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대와 만나면 민철이가 부끄럽지 않게 싸우다 갔다고 전해주시오.
자, 가시오.

빨릿!
앗!

뚜르르륵
이놈들아, 유격대가 여기 있다. 개새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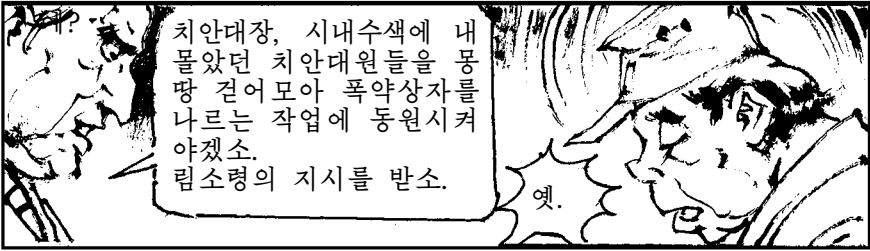
절컥!
앗! 탄알이 떨어졌구나.

마지막이군.

야야, 산채로 잡으라!

동지들! 잘 싸워주
십시오!

이놈들아, 장군님의 전사가 어떻게 죽는가를 똑바로 보라!
꽝!

데이비드의 방
흠, 그러니 서동영을 구출하려던 그 빨찌산부상자까지 둘 다 황천에 갔단 말이지? 좋아.
예… 그렇습니다.
방첩대장이 아주 큰 공을 세웠소. 그놈들까지 죽었으니 령혼작전의 비밀은 영원히 흑막속에 묻히게 됐소, 하하.

치안대장, 시내수색에 내몰았던 치안대원들을 몽땅 걷어모아 폭약상자를 나르는 작업에 동원시켜야겠소.
림소령의 지시를 받소.

옛.

데이비드의 방에서 나오던 조구와 치규는 때마침 들어서던 정화와 맞다든다.

아 향란씨, 어딜 갔다오는 길이요?

약국엘 좀… 사령관님이 몸이 편찮아 해서…

?!

사령관이 미인을 곁에 끼고있어 심심하진 않겠군.
저… 저게… 누굽니까?

누구라니? 당 신이 타자수로 천거한 신향란 이가 아니요?

신향란?… 아니…

범본 토끼처럼 놀라 긴?! 너무 절색이여 서 혼이 대번에 나 갔는가, 히히.

그년은 분명 죽은 교원계집의 동생 정화이다.

헌데 어떻게 유 격대에 들어갔다 던 그년이 신향 란이로 둔갑하여 위수사령부에 나 타났는가?

그럼 윤태정군의 판도 공산군정 탐?! 어이쿠.
내 그때 시내수색에만 신경쓰지 말고 그년부터 만나봤어야 하는건데…

예, 그 《치안대》대장놈은 친일주구예요. 해방후 벌써 처단됐어야 할 놈이 꼬리를 사렸다가 《치안대》완장을 두르고 다시 나타날줄이야.… 여기서 신향란의 역을 놀기엔 저를 아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아버지, 전 이젠 집에 올것 같지 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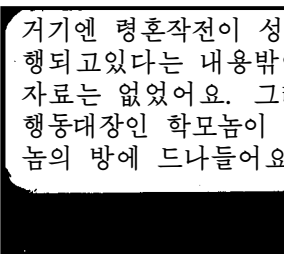
그러니 내 말대로 사흘안에 가산을 정리하고 여길 뜨세요.

미군이 영진포시는 공산군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했는데…

설마 쫓겨가기야 하겠냐, 정세를 보아가지고 움직이겠다.

야참, 내 몇번이나 말했어요.
미국은 여기서 더 지탱할 힘이 없다구요. 괜히 어물거리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말대로 해요.

야 이년아, 수천정보나 되는 땅과 재물이 아까와서 그런다.

좋아요. 후회하지 말라요. 아버지 재산이자 내 재산이라는걸 알라요.

유격대지휘부

민철동무의 최후소식을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우린 그를 찾으러 적들이 득실거리는 시내에 몇번이나 내려 갔댔는지 모릅니다.

그는 저때문에 죽었습니다. 흑흑.
그런데 동문 왜 놈들에게 체포되였댔습니까?
왜정때 비밀공사장에서 일한것때문이지요.

비밀공사장?!

공치규의 방
딸깍!

철컥,
속수무책할수는 없다. 빨리 그 년놈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령혼작전에 후과가 미칠수 있다.

엉?
태정이?!

공대장, 어딜 가는 길이요?

인민군정찰병을 사령관에게 소개한 네놈은 무사할것 같아서 망동을 부리는가?

뭐뭐?!

공치규, 두 총알에 맞지 않겠으면 처신을 바로 해.

날더러 어쩌라는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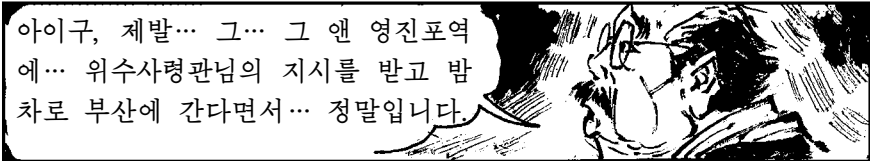
여느때처럼 행동하면 돼. 우리가 너를 지켜본다는걸 명심하라.

유격대지휘부 !
그때 비밀공사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은 저와 또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며칠전에 총살당했습니다.

참모장동무, 이 사실을 빨리 정화동무에게 알려 《수성》정찰조에 전해야겠소.

영진포시에 왜놈들이
패망하기 전에 파놓은
대규모의 지하갱도가
있음. 평훈작전과 관련
이 있는것으로 추측됨.
본부
지하갱도!
으악,
인민군대?!…
조용하오. 네놈과의
결산은 후에 하겠다.
동무들, 장란이를
찾아내시오.
중위동지, 집엔 아무도
없습니다.

령감, 딸년이 어딜 갔어?
모… 모릅니다.

아닌보살할텐가? 우린 방첩 장교인 그년에게서 령혼작전과 관련한 비밀을 알아내려고왔다. 빨리 대라, 지옥에 보내기 전에.

아이구, 제발… 그… 그 앤 영진포역에… 위수사령관님의 지시를 받고 밤차로 부산에 간다면서… 정말입니다.

부산에 가는 렬차라면 밤 12시에 떠날거요. 자 동무들, 늦기 전에 빨리 영진포역으로.

어휴, 내가 제 딸을 섬겨바치다니… 가만, 내가 왜 이러고있담.

빨리 위수사령관한테 알려야지.

강두만대령이요? 영진포역에 공산군이 나타났소. 즉시 출동하여 그놈들을 소탕하시오.
알았습니다.

방첩대장, 곧 사람들을 데리고가서 장란중위를 구원해 와야겠소. 간혹 한발 늦어 장란이 죽었다고 해도 그 시체를 강두만대령한테 넘어가기 전에 실어와야 하오. …
그런데 왜 갑자기 부산에 가오?
이렇게 나와주어 고마워요. 전 혹시 안 나오진 않을가 하는 생각을 했댔어요.
그건 묻지 마세요. … 지석씨, 사실 전 당신과 만나는것부터가 금지되여있어요. 사령관님의 지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저의 일체 행동은 극비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전 떠나기 전에 한가지만은 꼭 부탁해야겠기에 지석씨를 전화로 부르는 모험을 했어요. 이걸 알면 사령관님이 저에게 뒨추궁을 할거예요.
저 녀자가 장란이요. 체포가 실패하는 경우 내가 저년을 쏴갈길테요. 전투준비!

그래, 부탁할건 뭐요?

저의 아버지에게 빨리 영진포시에서 떠나라고 해주세요. 제 말은 통 듣지 않는군요.

아니, 떠나야 할 필요가 뭐요? 장란씬 벌써부터 영진포시가 공산군한테 넘어갈것이라고 속단하는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진포시는 절대로 공산군한테 넘어가진 못해요. 령혼작전은 그때문에 준비하는거니까요. 하지만 영진포시를 넘겨주지 않는 대가는 참혹할거예요.
극비에 속하는 문제이니 더 묻진 않겠소. 아버지걱정은 마오. 장란씨 소원대로 해주지.

꼭 부탁해요. 아버지가 잘못되면 전 땅과 재산을 모두 잃은 알거지가 될거예요.

손들엇, 우리는 인민군정찰병이다.

네가 장란이지? 우리와 같
이 가야겠다.

지석씨…

억!
얏!

어서 뛰라.

얏!
으악!

흑!
윽!

푹!

더러운 년.
윽!
뚜루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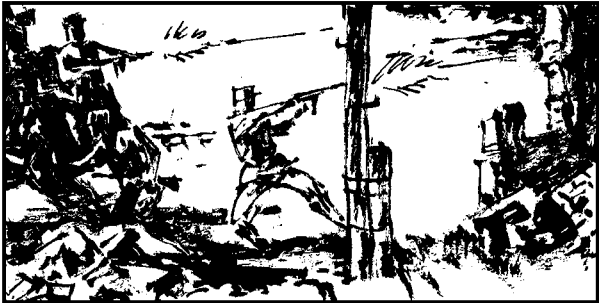
뚜루룩! 뚜루룩!
야야, 공산군이 저기 있다. 모조리 소탕하라.

철수.

엉?
날…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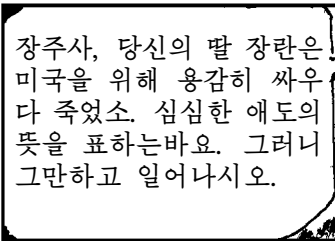
우린 죽으면 죽었지 포로는 될수 없소.
땅

아니?

?

이때 방첩대가 들이닥친다.
아니?… 이게 림소령이 아닌가? 어떻게…
대령님, 저기 장란씨가…
야!빨리
?
이건 뭐야? 상급도 모르게.
미안합니다. 대령님, 우린 지금 긴급임무수행중이여서…
그럼 전…
야, 뭣들 해! 빨리 장란을 차에 실으라.
부르릉~
왕조구, 덜돼먹은 놈. 남의 성과를 백주에 가로채? 방첩대장이 되더니 안하무인으로 날치는 이 송사리같은새끼.

어디 두고보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이고, 장란아, 이 아비를 홀로 남겨두고 네가 가면 어쩐단 말이냐, 으흐흑. 아이구, 가슴이 터진다. 아이구, 이젠 누구한테 그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준단 말이냐, 으흐흑.

장주사, 당신의 딸 장란은 미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 죽었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바요. 그러니 그만하고 일어나시오.
아! 난 미국을 위해 딸을 낳진 않았단 말이요, 으흑.

령감, 미쳤소? 어따대고 감히.
엉엉
꽥!
놔라, 내 딸 죽어 내가 통곡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이고 대고야, 으흑.

놔두시오, 제정신이 들 때까지 실컷 울게 말이요.
다 가는군.

병원
아이구,
아파라.

엄살을 부리지 마오,
당신도 군인인가?
아이구, 군의관님, 엄살이 뭡니까. 그놈이 어찌나 드세게 들이찼는지 턱이 달아나는줄 알았습니다.

아까는 넘어져서
다쳤다더니?!

아니, 저…

창고건물

허, 오늘은 림소령이 직접 나왔소?
이게 마지막폭약들이여서 직접 싣고왔습니다.

야, 빨리 폭약들을 부리우라!

한대 피우십시오.
미국제인데 …

잘 사는군그래, 고급만
쓰는걸 보니…
행동대장
학모

이런 멋도 없다면야 보급장교를 할 필요가 없지요.그런데 중령님은 행동대장이 된 다음엔 영 만나기 힘듭니다.

나두 고달파죽겠어, 늘 땅굴속에 처박혀있어야 하니. …

땅굴이요?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한 소리지. … 폭약을 다 부린것 같군. 소령은 돌아가보게.

공치규가?
어휴, 난 이젠 끌장이야. 이런 때 빠져나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여보, 소죽은 귀신처럼 그러지 말고 … 가기나 하세.

태정동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활동한것 같소. 이런 식으로 변두리에서 헤매다간 헛된 시간만 랑비할거요. 적극적인 공세로 넘어가야겠소.
어떻게 말입니까?

동문 우선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그 턱을 상한 놈의 정체를 밝혀내오. 그리고 정화동무에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행동대장놈한테 접근하라고 하오. 난 어떻게 하나 령혼작전조에 뚫고들어갈 길을 모색해보겠소.
예.

그리고 공치규놈을 순간도 시야에서 놓쳐선 안되겠소. 우리 기어이 살아서 임무를 수행합시다.

이 토지문서를 어디다 깊숙이 간수해야겠는데… 그놈들이 또 오면 이것마저. …
똑똑똑
엉? 공산군이 또 나타난게 아니야?! 아휴.

왜 혼빠진 놈처럼 그러오?!… 한가지 말할게 있어 왔소.
림소령이요?!…아휴, 그런걸 난… 십년 감수했수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왔소.

장란씨의 부탁인데 장주사님이 빨리 이곳을 뜨라고 하오. 장란씨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부탁했겠는데 잘 생각해보오. 그렇지 않다간 토지문서구 재산이구 다 하늘로 날아날수 있소. 난 가겠소.

?

안되겠다. 아무래도 이 땅문서만이라도 든든한 곳에 감춰둬야지.

공동묘지
으흐흐, 무시무시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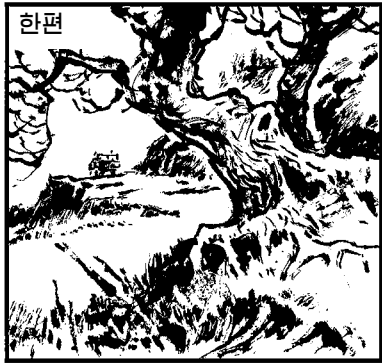
고 장란의 묘

여기다 감춰두면야 감히 찾을 놈이 없겠지.

빨리 파야지.

감쪽같이 숨
겨야지.

휴! 됐다.

장란아, 대대로 물려오는 토지문서를
잘 지켜다오. 이것마저 없어지면 이
아비는 끝장이다.

한편

군의관님, 절 어데
로 데려갑니까?
상처를 깨끗이
아물게 해주겠
다지 않아.

위잉

다 왔다. 내려!

이게 네 병에 대
한 첫 치료대책
이다.
앗!
윽!
휙

이름이 뭐야? 순순히 대지 않으면 죽여버릴테다.

호… 홍표…

어느 부대소속이야? 방첩대인가?

아닙니다. … 특별행동대소속…

행동대?!… 장란을 죽인 리유를 대라.

저… 전 모릅니다. 그저 시켜서… 지시를 집행했을뿐입니다.

좋다, 그럼 너희 행동대가 창고건물에 둥지틀고 뭘하는지 말해.

그건 저…

말하지 않겠는가?

아이구… 목숨만… 창고건물지하실쪽에 비밀갱도와 통한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폭약을 날라다 설치하고있습니다. 유사시 도시를 폭파한다고 합니다.

날 살려라, 공산군…
개자식, 받아라!

으악!
땅! 땅!

한편 토지문서를 묻고 공동묘지에서 내려오던 장주사가 총소리에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총 소리야? 엉?!

아이쿠!
풀썩!
부르릉~~

위잉
엉?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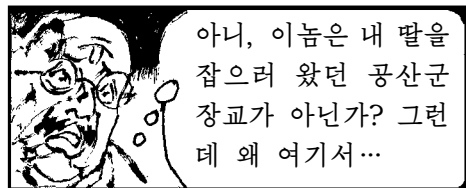
어엉?

아니, 이놈은 내 딸을 잡으러 왔던 공산군 장교가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서…

려… 령감… 윤…태…정…군 의관…이… 나를… 빨리… 사령관님…께…

뒈졌군. 헹, 군의관은 무슨 군의관. 내 딸을 죽인 네놈을 제물로 삼아 내가 상을 타야겠다.

사령관님, 도시방어를 책임진 강두만대령한테서 해안방어에 쓸 폭약을

더 요구한다는 신청문건이 왔습니다.

참 향란씨, 갑갑하지 않소? 하루종일 문건만 주무르자니… 나와 함께 시내구경을 하기요. 산보까진 못해도,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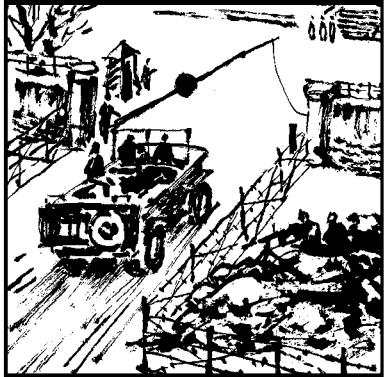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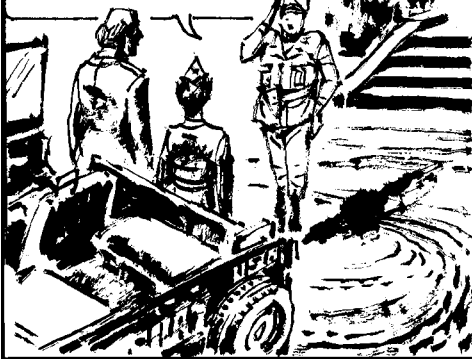
오늘은 참 기분이 좋으셨군요.
향란씨는 심리에 밝구만. 그건 좋은 일이요. 갑시다.

데이비드가 왜 갑자기 시내구경을 하자고 할가? 거리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야단인데…

향란씨, 감상이 어떻소?

내내 방에 갇혀있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니 조롱에서 놓여난 새와 같은 심정이예요, 호호.

하하, 이제 보니 향란씨에겐 아주 정서
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철학이 있구만.

창고건물 앞

사령관님, 행동대는…

아아, 그만하오. 행동대장,
난 허례허식을 즐기지 않소.
어서 나를 안내하오.

가만, 향란씬 내가 일을 보고 나올
때까지 주변구경을 더 하오.

교활한 놈, 나는 아직 믿을수
없다는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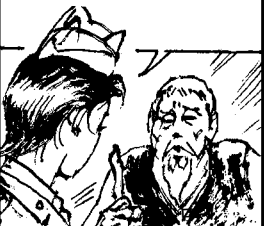
이때 순찰하던 공치규가 나타
난다.

아니, 저년이 저기엔
왜 와서 어슬렁거리
는거야?

이때 지나가던 한
로인이…

아니, 박로인이…
이걸 어쩌나.

네가 이게 웬일이냐? 미
국놈의 군복을 입다니?

이 늙다리야, 눈이
곪았어? 누굴보고
알은체 해.

썩 물러가!

무슨 일이요,
향란씨?

전 행동대장님의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만족한 걸요. 행동대장님의 사내다운 기질은 호감이 간다니까요.

거뭐 그렇게까지야… 헤.

저따위 청맹과니가 특별 행동대장이라구… 체.

행동대장, 경비를 배로 강화하시오.

행동대장님, 후에 또 만나요.

잘 가시오, 향란씨.

부르릉~
저놈들의 정체를 발가놔야겠는게 어떻게 한다?

그랬다가 진짜 량쪽총알에 맞으면 나만 녹을거구… 이건 정말 호미난방격이로구나. 어휴.

!!!
어이쿠, 사람이란 정말 모르겠구나. 정화가 미국놈의 개가 될줄이야.… 어휴.

그렇지, 저 령감을 리용하여 정화년의 정체를 밝히면 내가 화를 면할게 아닌가.

흐흐흐, 죽을수가 나면 살수가 난다더니.

음, 조구가…

사령관님, 홍표가
사살당했습니다.
뭐요? 그게 무
슨 소린가?

어제 밤 윤태정군의관과 함께 나
가는걸 봤다는데 오늘 아침 공동
묘지가 있는 야산기슭에서 홍표
의 시체가 나타났습니다.
엉?

윤태정군의
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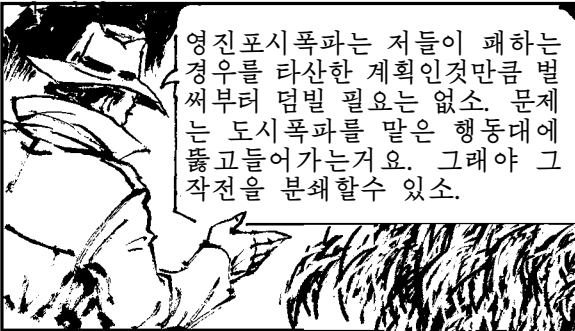
현장조사를 구체적
으로 하고 증거를
찾아내오. 그리고
윤태정에게 집중감
시를 붙여야겠소.
놀래워선 안되오.

알겠습니다.

큰일났구나.

수림속

놈들이 도시를 폭파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장란이가 제 애비를 영진포시에서 뜨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구만.

평혼작전이 어떤건지 이젠 알만 하오.
적들은 폭약장입도 끝낸것 같습니다. 닷새후엔 공격이 개시될텐데 어쩌면 좋습니까?

영진포시폭파는 저들이 패하는 경우를 타산한 계획인것만큼 벌써부터 덤빌 필요는 없소. 문제는 도시폭파를 맡은 행동대에 뚫고들어가는거요. 그래야 그 작전을 분쇄할수 있소.

제가 해보겠습니다.

동무는 안되오. 지금 동무는 홍표를 살해한 인물로 감시대상이 되였단 말이요. 그 문젠 정화동무나 혹은 내가 해결해야 하오.

창고지하실
아, 내가 이 꼴이 되다니… 으흑.

윽

흑
쟁가당

《령혼》, 어째서 사기가 저락됐소?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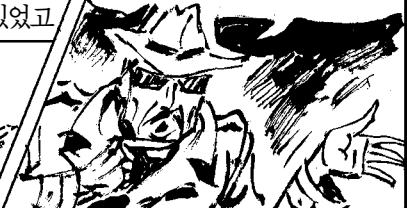
사령관님, 꼭 이렇게 해야만 작전을 할수 있습니까? 생사람을 불고기굽듯 하니 이거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흑흑.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공산군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없소. 우리가 왜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그건 영진포시폭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작전이기 때문이요.

당신도 알다싶이 우리는 영진포시방어계획을 3가지 방안으로 세웠소. 첫번째는 인민군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서 좌절시키기 위한 방어전투방안이요.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가 철수한 후 특별행동대가 비밀갱도에 있는 폭발물을 터뜨려 도시를 불바다로 만든 다음 재공격하여 영진포시를 다시 탈환하는것이 두번째 방안이요.

그러나 빨찌산들이 활동하고 공산군정찰병들이 잠자지 않는 조건에서 특별행동대에 의한 도시폭파가 좌절될수도 있다는걸 가상해야 하오.

그래 3안으로 작성된것이 령혼작전이며 주역을 당신에게 맡긴거란 말이요. 당신의 정체는
완전히 령혼같은 존재로 되여있으니 누구도 제3의 인물이 도시폭파를 단행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거요.
《령혼》, 다 실패해도 당신만은 성공해야 하오. 그것이 영진포시를 고수하고 기울어져가는 전쟁국면을 바꿔놓는 길이요.
그 뜻을 알겠습니다.
윤태정은 오늘도 별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엔 제 방에 내내 박혀있었고
오후에는 병상자 2명을 수술했습니다.
계속 감시하라.
예!

젠장, 차라리 윤태정을 불러다 시원히 취조해보는게 낫지 않을가? 윤태정이 미타한자라면 그가 소개한 타자수 신향란이도 다시 캐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이때 장주사가 의기양양해서 들어선다.
잘 있었나, 방첩대장.
아니, 장주사가 어떻게?
전번에 장례식날엔 사령관님한테랑 임자한테랑 정말 실수를 했네.
딸을 잃은 설음이 너무 커서 그만… 흑.
아아, 난 바쁘오. 찾아온 용무나 말하고 가오.
지절 지절
임자들이 홍표를 죽인 사람을 찾는다지? 난 누군지 아네.
장주사가 안다구? 그… 그게 누구요?
그건 바로 날세. 홍표란 놈이 우리 딸을 죽였기에 내가 복수를 했네. 사령관님한테 잘 말해서

난 그런줄 모르구… 여보게나, 사실 홍표를 죽인건 내가 아니라 윤태정 그놈이네.

암, 그날 밤 딸년의 묘를 보러 갔다가 숨져가는 홍표가 하던 말을 이 두귀구멍으로 정확히 들었네. 진짜야, 진짜.

데이비드의 방
하긴 홍표가 장주사따위한테 죽을 놈은 아니다. 장주사가 그럴만한 위인도 못되구… 음, 윤태정이!
박령감입니다.
음, 그래.
음, 흥미있소. 신향란이 정순이라는 교원년의 동생이라… 아주 흥미있소.
틀림없습니다. 이 령감과 타자수년을 직접 대면시키면 명백해질겁니다.
음, 신향란이 정순교원의 동생…
신향란씨요? 문건타자를 중지하고 내 방에 좀 오시오. 당신한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소.
불렀습니까?
아 향란씨, 누군지 알겠소? 반가운 고향사람을 만났는데 회포를 나누고싶지 않소?
?

창고앞에서 만났던 로망한 늙은이군요?! 고향사람이라는건 무슨 뜻인가요? 사령관님.
로망이라니요? 이 령감은 정신이 아주 똑똑합니다. 령감, 똑바로 말해. 이 계집이 누구라구?
이놈, 난 저따위 서양년같은 미국놈의 개를 몰라. 퉤이.
이 두상태기가 미쳤나.
공대장님, 당신도 저 령감보고 미쳤다고 하는군요.
이런 연극이 대체 누구한테 필요한 가요?
치안대장, 이게 어떻게 된거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때 보급장교 림지석이 들어선다.

아 림소령, 당신은 날 믿을테지. 사실 저 신향란은 빨찌산이요. 정화라고 하는… 그런데…

그건 무슨 소리요. 저녀잔 한때 내가 사랑하던 처녀란 말이요. 빨찌산은 무슨 빨찌산.

아가씨, 이렇게 만날줄은 몰랐소. 언제이든 꼭 조용히 만나길 고대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차겁게 대하누만. 5년전 내 사랑에 찬물을 끼얹던 그때가 생각나오?

전 철부지시절의 추억을 간직하는 성미가 아니예요, 흥.

치안대장, 난 몹시 불쾌하오. 당장 저 정신병자두상을 쫓아버리시오. 나가시오.

예, 예.

림지석에 의해 조성된 위기는 가셔졌다. 정화의 생각은 복잡했다.

림지석,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랑을 약속했던 그와 단호한 결별을 선언한것은 그가 시도매소에서 쫓겨났을 때였지…
지석동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라구요?! 이제 보니 동문 그런 사람이였군요? 그토록 바라고바라던 조국을 찾았는데 그걸 버리고 가겠다구요?! 그건 반역의 길이예요, 반역의 길…

사람은 때때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갈지자걸음도 하게 되는거요. 내가 반역의 길로 갔는가 옳은 길로 갔는가는 후에 증명되겠지.

저를 강두만대령님한테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공산군의 공격을 물리치는 시방어전에 참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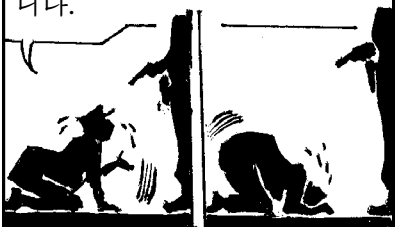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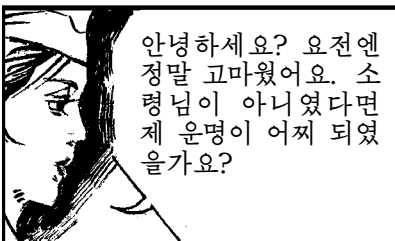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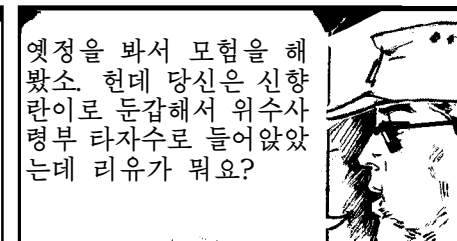
흠 소령, 남들은 보급장교로 되지 못해 안달아하는데 당신은 이상하구만.

1선에 서지 못하는 장교는 무훈을 떨칠수 없지요.

전 이미 공산군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가서 기다리시오.
아주 좋소. 지금이야말로 당신같은 용감한 장교가 필요한 때요.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공치규의 방
죄지은게 있는게군. 왜 그리 놀라오?
다 알고왔겠는데… 왼새끼를 꼬지 마시오.

공치규! 정신차렷.
흠, 솜씨가 있더군. 공치규, 이제 다시 그따위 오그랑수를 썼다간 용서치 않겠다. 창고에 가둔 박로인을 당장 석방시켜.

안녕하세요? 요전엔 정말 고마웠어요. 소령님이 아니였다면 제 운명이 어찌 되였을가요?

정의를 위해서지요. 고발할텐가요?

난 녀자들한텐 관대한 사람이요. 그러나 당신이 요전과 같은 봉변을 당하면

두번다시 도움받을 생각은 마오.

나 역시 그걸 바라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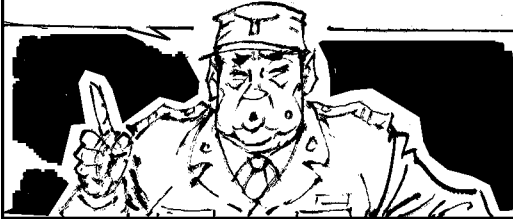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소, 향란씨? 신색이 좋지 않구만.

어제날 벗이였던 원쑤와 만났댔어요.…

허, 그거 극적인데가 있구려. 그래 어떻게 됐소?

그 말은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그건 그렇구, 행동대장님은 할일도 다 했다면서 왜 아직 창고건물에 박혀있어요?

모르는 소리, 기본 할 일은 이제 남아있단 말이요.

향란씨한테만 말하는데 우린 퇴각하는 경우 이 영진포시를 허양 날려보내게 되오.

그 임무를 바로 내가 맡았단 말이요.

어마나, 그럼 재가루가 되게요?
쉿!… 공산군한테 공짜로 넘겨줄줄 알았소? 천만에… 공산군의 공격을 격퇴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땐 이 학모는 도시와 함께 황천으로 갈거요. 아! 불쌍도 하지.

향란씨, 부탁이요. 내가 저승으로 가기 전에 꽃다운 미인과 련정을 나눈걸 달콤한 추억으로 안고가게 해주오.

쓸쓸한 이 사나이의 가슴을 애무해주오.

취하셨군요.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의 적당치 못한 행동은
녀성에 대한 최대의 멸시로 되는거예요.

그럼 래일 밤 내 방으로
와주. 기다리겠소.

대령님, 불렀습니까?
아, 림소령. 사랑스러
운 용사. 임자 나한테
로 오지 않겠나?

참모장자리
를 주겠네.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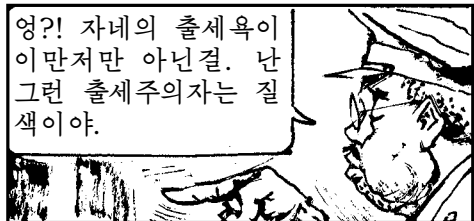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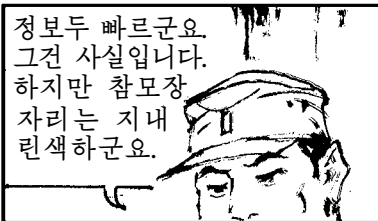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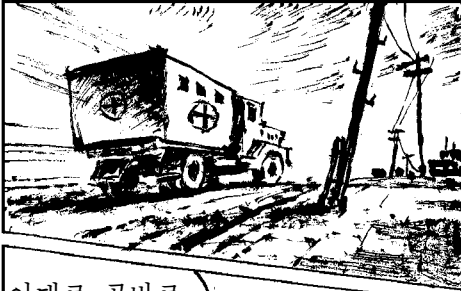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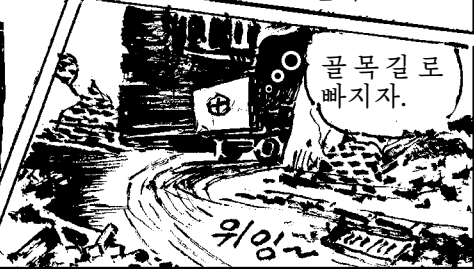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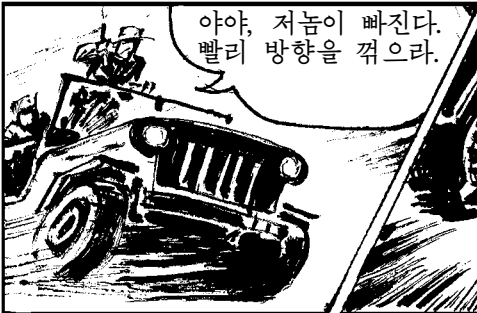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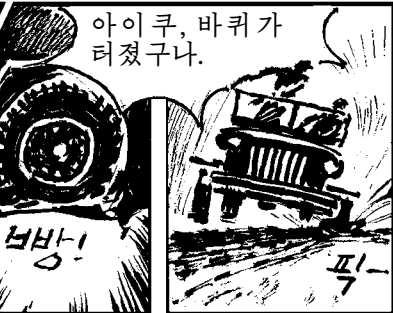
글쎄요. 전 지금
이 좋은데요.
싫다?! 난 그래두
자네가 데이비드
사령관한테 시방
어를 맡게 해달
라고 건의한줄
아는데…

정보두 빠르군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모장
자리는 지내
린색하군요.

엉?! 자네의 출세욕이
이만저만 아닌걸. 난
그런 출세주의자는 질
색이야.

그렇다면 저두 대령님한테
구걸하고싶진 않습니다.

북에서 월남한것들이란
온통 제 욕심만 채우려드
는 쓰레기들뿐이라니까.

도로

감시가 붙었구나. 조장동지와 만날 시간인데 어떻게 한다?!…
이대로 곧바로 갈수는 없다. 따돌리자.
골목길로 빠지자.
위잉~

야야, 저놈이 빠진다. 빨리 방향을 꺾으라.
아이쿠, 바퀴가 터졌구나.
빠방!
픽-

제길할것, 백마, 백마, 나는 악어, 대상물을 놓쳤다.
떨떨한것들, 내 그만큼 말했는데 놓쳐?!
딱!

그놈이 시내에서 사라졌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죄송합니다. 바퀴가 터져나갈줄이야…
썩! 나가!

데이비드가 알면 생야단을 칠테지?! 어휴, 제발 그놈이 아무런 눈치도 못 채고 다시 돌아와야 할텐데.

위수사령부앞마당
방첩대장!

왜 풀이 죽었소? 공산군이 쳐들어온다니까 벌써 겁을 먹은게 아니요?

공산군보다 사령관이 더 무섭소. 방금 데이비드에게 불려가 쌍욕을 배터지게 처먹고 나오는 길이요.

놓쳐버렸거던. 그놈이 시내에 다시 안 나타나면 난 끝장이요.

젠장, 미리 알았다면 내가 그놈의 숨통을 짓눌러놨을걸. … 지내 실망할건 없소. 그놈이 정찰병이 틀림없다면 꼭 다시 올거요.

군의관놈이 나타났군…
백마, 백마, 악어가 보고한다. 윤태정이 돌아왔다. 어떻게 하라는가?
백마, 백마.

뭐? 돌아왔단 말이지. … 놀래우지 말고 감시를 계속하라.

한편
절컥!
윤태정이 나타났단 말이지?! 홍표의 복수를 해줄테다.

아니 대장님, 절 초청하시군 어딜 가시는가요?
아 향란씨, 미안하오.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밤은 안되겠소.

흥, 당신의 녀성관이라는게 이렇군요. 됐어요. 다신 대장님을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아, 향란씨, 그런게 아니요.

실은 홍표를 죽인 윤태정을 징벌하러 가는 길이요.

그놈은 공산군정찰병이요. 내 부하를 죽인 놈이니 내가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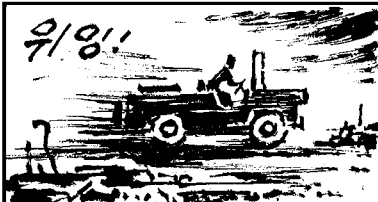
태정동지가 위험에 처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위급하다. 빨리 대책해야 한다.

그놈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속도를 높이자.

위잉!

잉!

벌컥!
?!

태정동지, 빨리 피하세요. 행동대장놈이 홍표를 죽인 복수를 하겠다고 오고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내 부하를 죽인 놈을 내가 처리하는데 방첩대가 무슨 상관이야. 저리 비켜.

엉?

나 하나의 죽음으로 놈들의 기도를 파탄시킬수만 있다면 두려울것 없소. 자, 가오.
못 가겠어요, 흑흑. 차라리 같이 싸우다…
뭐라구? 임무를 생각하시오, 에익.
얏!
딱!
휘익
앗!
미안하오. 정화동무, 달리는 할수 없었소. 동무는 조장동지를 도와야 하오.
쨍강!
휘익-
문을 까부시라!
우지끈!
쾅!
엉? 향란씨, 향란이 … 젠장.

야, 추격
하라!
먹! 으악!

얏
뚜루룩!
휘익-

야 저놈이 차를 타고
도망친다, 차를 대라.
빨리!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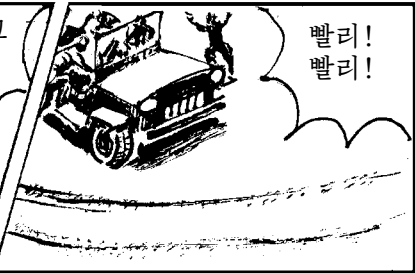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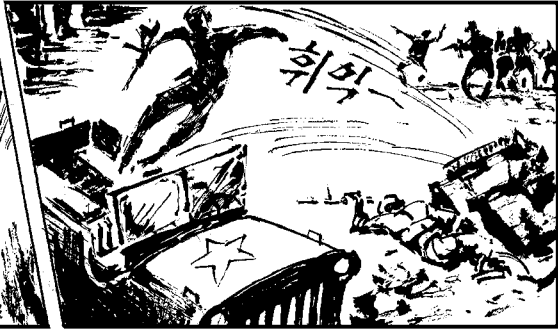
으악! 차가 맞
받아온다!

으악!

이놈들! 한놈도 살아나가지 못한다.
윙
쾅!

아! 태정동지.

아!

파르릉

데이비드의 방
당신같은 무능한이 어떻게 방첩대를 지휘하는가?

전… 행동대장이 그렇게 돌발적으로 나올줄은…

듣기 싫소. 당신때문에…

행동대장은 저승으로 갔고 령혼작전은 암초에 부딪쳤단 말이요. 이 참패를 무엇으로 만회하겠는가?
기회를 주십시오. … 그러면 윤태정과 련결된 정탐망의 밑뿌리를 들춰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하오. 이 순간부터 시내를 전면 봉쇄하고 참빗 훑듯이 살살이 뒤지시오, 치안대까지 총동원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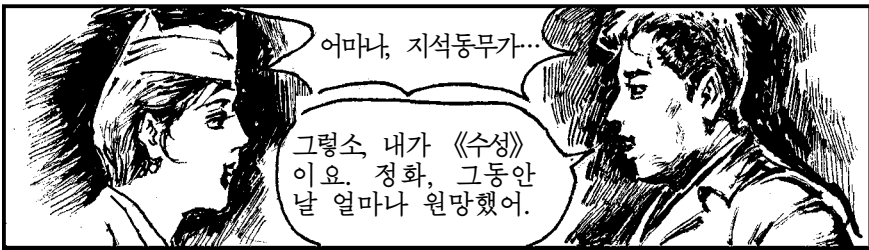
정화는 접선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나온다. 접선자는 누구인가?

시간이 거의 다됐구나. 《수성》은 어떤 사람일가?

?

아가씨는 혹시 여기서 《밤하늘》 상표가 붙은 담배곽을 못봤는가요?

못 봤어요, 《수성》 상표가 붙은 라이타가 있었을뿐이예요.

정화동무!

어마나, 지석동무가…

그렇소, 내가 《수성》이요. 정화, 그동안 날 얼마나 원망했어.

림지석은 오래동안 《수성》의 대호를 가지고 적들속에서 공작해온 조선인민군 정찰군관이였다. 그는 령혼작전을 파탄시킬데 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모르게 윤태정과 정화의 뒤받침을 해준 정찰조장이였던것이다.
아, 어쩌면… 어쩌면… 지석동무, 흑흑.

윤태정동무는 임무수행을 위해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소. 우린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선 안되오.
저도 태정동지의 모습에서 조국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깨달았어요.

정화, 이제 이틀후면 아군이 영진포시해방을 위한 공격을 개시하오.
야! 그날이 드디여 오는군요.

싸움은 이제부터요. 동무는 곧 유격대에 아군의 공격과 때를 맞추어 행동대가 둥지를 튼 건물을 탈환하라는 련락을 해야겠소.

알겠어요.

원쑤와 판가리사생 결단하는 이 전투를 훌륭히 수행합시다.
예!

데이비드의 방

유격근거지

데이비드의 방

사령관님, 분부대로…
아, 림소령. 난 당신을 특별행동대장으로 임명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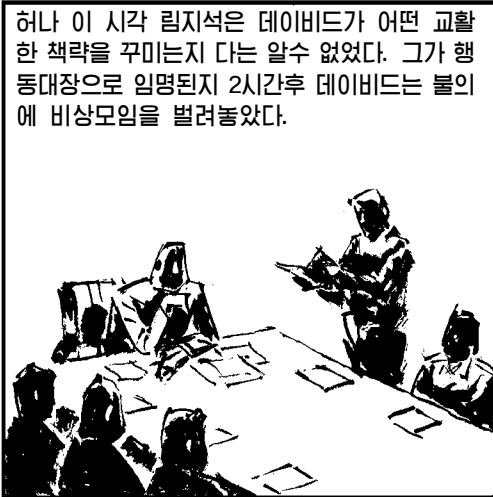
저를요?
그렇소. 선임이였던 학모대장처럼 자유세계를 위해 활약하기 바라오.

신임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당신의 임무는 영진포시 지하에 일본군이 전시물자수송을 위해 파놓았던 큰 갱도가 있는데 거기에 장약한 폭발물을 터뜨리는거요.

물론 우리가 공산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에 말이요.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놈들의 령혼작전 심장부로 뚫고들어갈수있게 되였구나.

허나 이 시각 림지석은 데이비드가 어떤 교활한 책략을 꾸미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그가 행동대장으로 임명된지 2시간후 데이비드는 불의에 비상모임을 벌려놓았다.

현 급변사태에 대처하여 영진포시위수사령부는 긴급지령을 하달한다.

인민군이 공격을 개시하면 시방어를 맡은 미군과 국군은 즉시에 총퇴각할것이다.

공산군과 일체 저항하지 말고 영진포시밖으로 퇴각하여 방어선을 구축할것.

특별행동대는 계획했던 영진포시폭파를 포기하고 비밀갱도와 련결된 입구를 폭파하여 매몰시킬것.
?
각하,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강대령, 말하시오.
전 퇴각명령에 찬성할수 없습니다. 숱한 품을 들여 방어구축물을 쌓았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퇴각하다니… 우린 죽기를 각오하고 해보겠습니다.
강두만대령, 허세를 부리지 마오. 나의 지시를 거역하는자는 군법에 넘길테요. … 앉으시오.
무슨 꿍꿍이일가? 깊이 생각해보자.
모를 일이다. 놈들이 왜 갑자기 영진포시를 내놓으려 하는가? 도시폭파도 포기하는걸 봐선 무슨 꿍꿍이가 있는게 틀림없다.

대체 그게 어떤것일가?…

대장님, 갱도입구를 매몰시켰습니다.
든든히 했어?

예, 다시는 파헤치지 못하게 돌사태를 퍼넣었습니다.

좋다, 그럼 창고를 폭파해.
옛!

꽝!
콰르릉!

데이비드의 방
장주사, 난 장란을 생각해서 권고하오. 어서 여기를 떠나시오.
저! 저… 사실은.

흑흑, 땅과 재산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수다. 미군이 인차 다시 나온다는데 차라리 남아서 기다리 는게…

노우, 우린 이 도시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되오. 목숨이 귀하거든 당장 떠나시오.

이것은 내가 장주사를 위해 해줄수 있는 마지막기회요.

아니, 장주사가 어떻게?

아! 림대장, 도시를 폭파한다는게 사실이요? 사령관이 불러서 왔더니 날보고 당장 떠나라누만, 흑.
사령관이 도시를 폭파한다고 했단 말이요?!… 그럼 지체말고 떠나구려, 괜히 앉은자리에서 벼락 맞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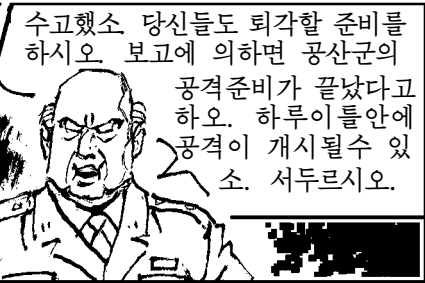
그렇지, 마른 벼락 맞을수 있지.

그건 뭐요?
문건들이예요. 데이비드가 퇴각준비를 서두르라면서 독촉하기에…

내 아무래도 데이비드를 만나봐야겠소. 한쪽으로는 도시폭파를 중지시키고 한쪽으론 도시를

폭파한다는 소릴 하니 갈피를 잡을수 없단 말이요.

저도 놈들이 도시를 순순히 내여준다는게 이상스러워요.

사령관님, 갱도 입구를 완전히 매몰시켰습니다.
수고했소. 당신들도 퇴각할 준비를 하시오. 보고에 의하면 공산군의 공격준비가 끝났다고 하오. 하루이틀안에 공격이 개시될수 있소. 서두르시오.
전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숱한 폭약을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퇴각할수가 있습니까? 통분합니다.

행동대장, 신심을 잃지 마오. 갱도입구를 매몰했다고 령혼작전이 끝난건 아니요. 당신들이 못한 일을 《령혼》이 대신할거요.

예?
림소령, 그쯤 알아두시오.

결국 영진포시폭파는 《령혼》이라는 유령인물이 단행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데 갱도입구는 매몰되지 않았는가. 《령혼》은 어떻게 도시를 폭파한다는것이며 대체 《령혼》은 어떤자일가?

탁!
에익!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뒤집히다니…

부대에선 래일 공격을 개시하겠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을수 없다. 더 침착히 생각해보자.

데이비드는 이 작전을 왜 《령혼》이라고 달았는가?

령혼이란 죽은자의 혼이 라는 미신적관념이다. 그렇다면?… 누가 령혼의 탈을 쓸수 있겠는가? 가만…

그렇지 않아요. 영진포시는 절대로 공산군한테 넘어가진 못해요. 령혼작전은 그때문에 준비하는거니까요. 하지만 영진포시를 넘겨주지 않는 대가는 참혹할거예요. 꼭 부탁해요. 아버지가 잘못되면 전 땅과 재산을 모두 잃은 알거지가 될거예요.

가만 데이비드는 어째서 장주사한테만 도시폭파계획을 알려주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장란의 죽음은 확실히 묘연한데가 있다.

인민군으로 가장한 홍표의 장란에 대한 사살, 강두만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방첩대가 들이닥쳐 장란의 시체를 실어가는 바람에 그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지?! 그럼
장란이가 《령혼》? 장란? 《령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림지석은 장란의 죽음을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장란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수성》 조는 임무를 수행할 길이 막연해지게 된다. …
장란의 죽음을 빨리 명백히 알아보아야 한다.

땅문서를 도로 파와야겠구나. 후유, 이럴줄 알았으면 괜히 고생스레 묘지에 파묻었지. …
한편 장란의 묘에서

무시무시한데…

악! 저… 저게 뭐야?…
귀… 귀신이다아—

으응.

사람살리우.
엉?

부들부들
어이쿠, 공대장, 날 살려주—으흥.

이 두상 왜 또 야밤에 나타나 부산스레 놀아. 두상은 상판만 봐도 역증나오.

상판이구 역증이구 귀… 귀신이 나타났네. 내 딸 장란의 묘에서 추… 춤을 추고있어.

이 령감이 점점 미쳐가는군. 순찰하는데 방해말구 썩 사라져.

어이쿠, 왜 점점 망조만 찾아드는지. …

뭐, 장란의 묘에서 귀신이 춤을 춰?… 이상한걸.

조장동지, 토지문서예요.

장주사놈이 토지문서를 여기에 감췄구만. 무덤속에 넣으면 안전할줄 알구. 더러운 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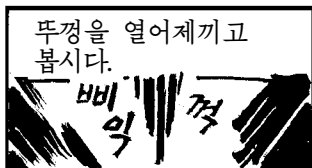
휘익

자! 더 파기요, 관에 안치된 시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소.

뚜껑을 열어제끼고 봅시다.
삐익
꺽

아니? 이런…

흑흑, 언니, 이게 웬일이예요. 언니가 여기 있은줄은… 아… 흐흑.
놈들이 장란을 죽이는 연극을 꾸미고는 정순선생을 살해하여 관속에 집어넣었소. 악귀같은 놈들!

우리 언니의 피의 복수를 천백배로 합시다.

그들은 정순선생의 시신을 다시 안치하고 산을 내리였다.
《령혼》이 장란이라는것이 명백해졌소.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장란을 찾겠어요?
그년은 분명 비밀갱도에 들어박혀 있을거요.
출구를 몽땅 매몰시키지 않았어요?!
어디엔가 비상출구가 있을거요.
이 무렵 산기슭에 숨어있던 공치규가 이들을 발견한다.
이놈들, 마침 잘 만났다. 어디 귀신 몰래 뒈져봐라.
부스럭~
앗! 비키세요.
?
휙
땅! 땅!
아앗!
아, 정화! 에잇.
공치규, 네놈이?! 받아라.
땅! 땅! 땅!
욱!
그윽
퍽
퍽
푹

정화, 심하게 다쳤소?
괜찮아요.… 어깨를 좀… 지석동무가 무사하니 다행이예요.…

정화, 동무는 이길로 근거지로 가오. 대장동무를 만나 습격을 중지하고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인민군부대와 함께 영진포시해방전투에 참가하라고 련락하오. 난 《령혼》과 마지막대결을 하겠소.

위험해요.
걱정마오.
명령을 수행하기 전엔 절대로 죽지 않을테니.

지석동무…

장주사의 집
아이구 골이야, 아이구… 귀신한테 토지문서를 떼웠구나. 어휴, 내가 미쳤지. 그건 왜 거기다 묻어가지구 아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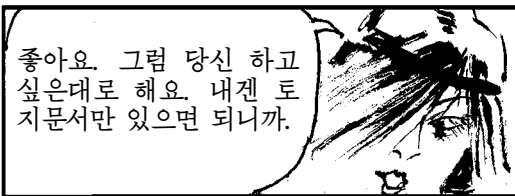
으으악, 귀… 귀신이다아—

아버지, 저예요. 장란이예요.

자… 장란이라구? …그럼 죽었던 네가… 무덤속에서 기여나왔단 말이냐?! …호 …혼이 나왔구나. 으흐, 무서워라.
난 혼이 아니예요. 사실 난 진짜 죽은게 아니라 령혼작전을 위해 죽은체 했을뿐이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선 땅도 재산도 지킬수 없기때문이예요.

토지문서를 거기 감췄어요? 젠장, 답답도 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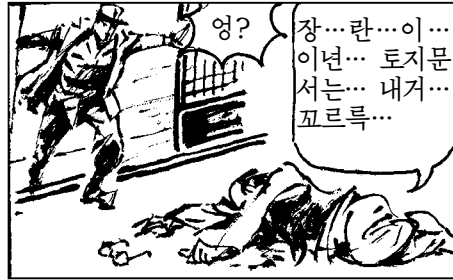
야, 가자!

땅과 재산을 노리는 장란이 아직까지 애비가 영진포시를 떠나지 않았다는것을 알면 꼭 집에 와볼것이다. 그것을 놔두고 도시폭파를 단행할년은 아니다. 장주사집으로 가보자.

땅! 땅!
엉? 장주사놈의 집쪽이다.

엉?
장…란…이…이년… 토지문서는… 내거…꼬르륵…

그럼 장란이 가?!… 가만… 공동묘지에?

으흐흐, 하—

있구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 재산만 있으면 난 얼마든지 호강하며 다시 잘 살수 있어.
빨리 돌아가야겠소. 사령관님이 우리가 몰래 나왔다는걸 알게 되면 재미없을거요.

저놈들이 비상출구로 갈것이다.
그래, 가자.

뒤를 따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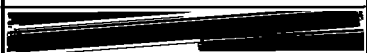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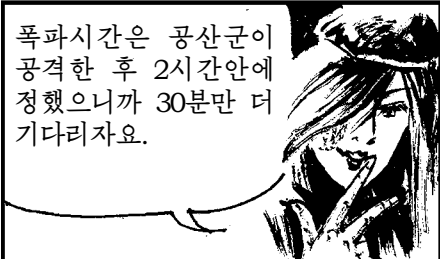
한편 유격대지휘부에서

대장동지, 《수성》은 자기가 기어이 《령혼》을 찾아내여 영진포시폭파기도를 파탄시킬테니 우리는 공격이 개시되면 놈들의 퇴각로를 차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해낼거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성과 같이 조국을 지키는 길에서 생을 빛내일 각오로 불타는 전사는 결코 못해낼 일이 없는거요. 수고 많았소, 정화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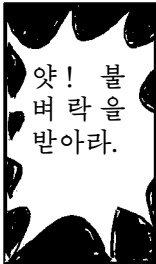
이젠 다 왔소.

장란씨, 이거 섭섭한데요. 큰일을 저 혼자 하려들다니? 날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구만.

다음날 인민군련합부대는 마침내 영진포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인민유격대는 도망치는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여 적들을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시간이 됐다. 탈출준비를 하라.
내가 도화선에 불을 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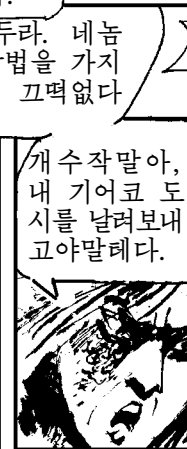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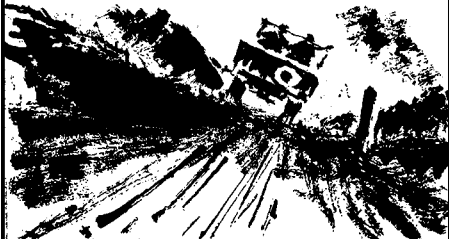
장란씨, 내가 불을 달겠소.

얏! 불벼락을 받아라.

으악!

림지석, 속았구나. 개자식.

야! 받아라.

도화선에 불을 달라! 빨리!
땅! 땅! 땅!

으악!
희억-
얏!
철컥!
탄알이 떨어졌구나.
아이쿠, 분통이 터지누나.
《령혼》, 똑바로 알아두라. 네놈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발악해도 내 조국은 끄떡없다는것을…
칼을 버렷!
개수작말아, 내 기어코 도시를 날려보내고야말테다.
빡
쟁강

데이비드가 탄 차는 시내를 빠져 달아나고있었다.

그러나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유격대의 매복에 걸려들었다.
사격!

원쑤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라. 돌격 앞으로!

으악.
부관! 엉?
데이…

아이쿠!

받아라, 동지들의 복수다.

으악.

넌? 향란.
난 향란이가 아니라 유격대원 정화다.

유격대! 악!… 무서운 일이다.

그걸 이제야 아는가? 너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전체가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를 패배의 쓴맛속에 알게 될것이다.

아직 승리를 말하기는 이를거요. 몇분후면 당신들은 도시와 함께 황천으로 갈거요.

가소롭다.

저기를 보라, 누가 오는가를!

엉?! 장란?… 아이쿠, 파탄된 령혼작전!

이 전쟁에서는 미국이 여지없이 패하였다. 아! 무서운 나라 조선, 무서운 사람들.